

# 현실과 반영 : 1970년대 사회-문화적 네트워크로서의 프랑스 건축전문지

이 종 우\*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강사, 건축학박사)

주제어 : 1970년대 프랑스건축, 건축전문지, 상대적 자율성, 사회문화적 네트워크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1970년대 유럽과 미국의 건축의 전반적인 상황은 근대건축이념의 쇠퇴로 인한 이념적 위기와 국제적인 경제 위기로 특징지워 질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럽 각국의 젊은 건축가들은 주목할 만한 건축물을 만들어내기 보다는 이론적 작업에 몰두를 하게 되었다.

실제로, 이 시기 건축가들의 이론적 작업을 통해 근대건축이념이 근본적으로 비판되거나 재해석되고, 건축과 사회(및 도시)의 관계에 대한 대안적 담론의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또한, 건축 교육과 연구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이루어졌다.<sup>1)</sup>

이러한 지적 작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대한 연구는 근래에 들어와서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연구의 부족은 우선적으로 현대사 연구의 어려움,

즉 아카이브의 미비와 아직 진행 중인 역사에 대한 해석의 문제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의 빈곤은 포스트모더니즘 건축과 해체주의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1980년대 이후의 건축에 대한 연구의 상대적 관심함파도 비교되는데, 여기에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지어진 건물이 증언하는 주요한 역사적 변화들에 주목하는 전통적인 역사서술의 관점은 주목할 만한 실제적 생산물이 부족한 이 시기의 건축가들의 활동을 주된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켜왔다고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1960,70년대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사이에 위치한 정체성이 불분명한 시기로 간주되어 왔다.<sup>2)</sup>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이 시기 건축가들의 지적 활동들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적 활동과 이론적 활동, 개인적 활동과 집단적 활동 사이의 교량역할을 했던 건축 전문지에 주목한다.

1960,70년대에 유럽과 미국에서 수많은 소규모 건축전문지(architectural periodical)가 창간, 간행되었다.<sup>3)</sup> 이러한 소규모 건축전문지

\* 교신저자, 이메일: jwleefr@gmail.com

1) K. Michael Hays, 「편저자 서문」, 『1968년 이후의 건축이론』, 붕일범 역, 시공문화사, 2003(2000); Beatriz Colomina et al., "Introduction," in *Clip/Stamp/Fold: The Radical Architecture of Little Magazines 196x-197x*, Actar publisher, 2010 참조.

2) Marilena Kourmiati, « Après-guerres : révisions de l'histoire et reconquête du « modernisme » », *Criticat*, n°3, 2009, p.63-80 참조.

의 부흥은 근대건축이 주도적인 건축 이념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건축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심각하게 재고되던 상황과 깊이 맞물려있다. 1960, 70년대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위기는 젊은 건축가들을 이념적, 실무적으로 주변적 위치에 머무르게 만들었으며, 이들의 건축적 활동은 실무의 영역보다는 교육, 출판, 전시, 아이디어 현상설계 등과 같은 실무를 둘러싼 '주변적' 영역과 그들 간의 상호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1970년대 당시 하나의 전반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던 건축전문지 출판이 사회적 현실과 이론적 건축 담론의 중간적 위치를 갖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1970년대 건축계에서 새로운 건축 담론을 만들어내는데 건축전문지가 행한 역할을 상대적 자율성의 개념에 기초하여 구체적 사례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1970년대 건축전문지의 사회적, 문화적 역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 발간된 두 개의 건축전문지, 『AMC(이하 아엠세로 표기)』와 『L'Architecture d'Aujourd'hui(이하 오늘의 건축으로 표기)』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아엠세』의 경우 1967년부터 정부공인건축사협회(Société des Architectes Diplômés par le Gouvernement)에 의해 출간되었는데, 이 중에서 1973년부터 1981년까지의 시기, 즉 파트리스 노비앙(Patrice Noviant, 1945-)을 편집장으로 하는 새로운 편집진에 의해 건축사협회의 기관지에

서 탈피하여 당시 신세대 건축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은 시기를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sup>4)</sup> 『아엠세』는 젊은 건축가들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주변적인 위치에서 동시대의 주도적인 건축담론을 비판하며 건축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소규모 전문지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인다고 하겠다.

반면에 또 다른 분석대상인 『오늘의 건축』은 일반적으로 주도적 건축 경향을 대변하고 공고화하는 공식적 전문지로 분류된다.<sup>5)</sup> 이러한 공식적 전문지는 주류 직업단체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직업적이고, 판매부수와 광고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에서 상업적이다.

그런데 프랑스의 대표적인 공식적 전문지였던 『오늘의 건축』은 파리의 UPA8 건축학교(이하 UPA8로 표기)의 창립자인 베르나르 위에(Bernard Huet, 1932-2001)가 편집장을 맡으면서<sup>6)</sup> 급격한 성격변화를 겪었고, 앞서 언급한 소규모 전문지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sup>7)</sup> 편집은 특정 그룹의 건축가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매 호의 기사들은 뚜렷한 편집정책 하에 준비되었다.<sup>8)</sup> 본 논문에서는 『오늘의 건축』의 역사에서 이 예외적인 시기에 주목하려고 한다.

이 두 출판물은 공통적으로 1968년 이후 건

4) 1977부터 1981년 동안에는 파트리스 노비앙과 자크 루강(Jacques Lucan)의 공동편집장 체제로 운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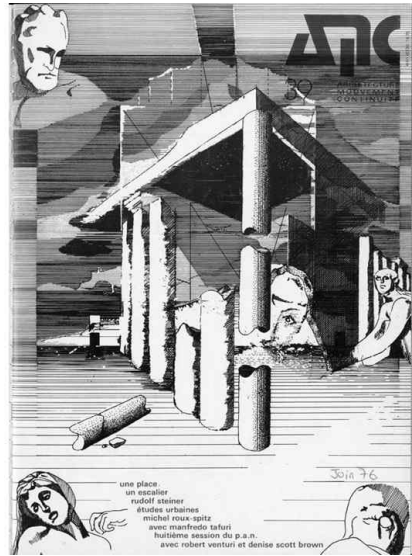
5) 미국의 『Architectural Record』, 영국의 『Architectural Review』, 이태리의 『Domus』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6) 174호(1974년, 7-8월)에서 190호(1977년 4-5월)에 해당된다.

7) 베아트리스 콜로미나는 이러한 일시적 성격변화를 큰 잡지가 '작아지는 시기(moment of littleness)'라고 부른다.(앞의 글)

8) 뒤에서 보겠지만, 이러한 급진적인 방향전환은 광고주 및 발행인 및 기성 건축단체(Ordre des architectes)와의 갈등을 초래했고 이 예외적 시기가 조기에 종결되고 새로운 편집진으로 교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3) Beatriz Colomina et al.은 2007년부터 진행중인 순회 전시회 « Clip/Stamp/Fold »와 동명의 출판물을 통해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 1960, 70년대에 발간된 70여종 이상의 소규모 건축 잡지를 재조명하였다.



<그림 1> 1970년대 프랑스의 두 건축전문지: 『오늘의 건축』, 174호 표지(좌), 『아엠씨』, 39호의 표지(우)

축 교육과 연구의 (재)정립을 통한 프랑스 건축 문화의 쇄신이라는 전환기의 역사와 맞물려 있으며, 오늘날 연구자에게 있어 건축 담론 생산의 주요 장소 중 하나인 건축전문지가 건축계의 변화라는 사회적 상황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두 전문지 분석에 앞서 1960,70년대 프랑스 건축계의 상황을 점검하고, 또한 건축전문지가 현실과 맺는 관계, 혹은 전문지의 상대적 자율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다룰 것이다.

## 2.역사적 이론적 배경

### 2-1. 1960, 70년대의 프랑스 건축계

1970년대 프랑스 건축계를 관통하는 주요 주제는 새로운 건축 교육과 연구 체제의 확립이었다. 1968년까지 프랑스의 건축교육을 주도해온 국립보자르학교(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arts)의 건축분과(section architecture)는 2차대전 이후 더욱

가속화된 사회변화에 대응하지 않고 일반대학교의 학제들과 유리된 채 아틀리에 체제로 이루어진 도제식 교육과 1663년에 제정된 로마상(Prix de Rome) 수상자 배출을 목표로한 교육을 고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자르 건축 교육 이후 새로운 다수의 건축교육단위(Unité Pédagogique d'Architecture, 이하 UPA 또는 건축학교로 표기), 특히 파리지역을 중심으로 젊은 건축가들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된 여러 건축학교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한 목표는 사회, 도시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근대건축의 역사를 재해석하여 보자르 교육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안적인 건축 학제(architectural discipline)를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sup>9)</sup>

그런데, 젊은 건축가들을 주축으로한 건축학제의 (재)정립시도는 내, 외부적인 조건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첫째, 여러 건축학교에 흩어진 젊은 건축가

9) 지방에서는 지역건축학교 (Ecole régionale d'architecture)가 UPA로 대체되었다.

들은 건축 제도와 문화를 쇠신하려는 공통된 목표를 가졌으나 정치적 입장, 건축학제 개혁의 방향과 성격에 대한 입장 차이, 그리고 복수의 건축학교라는 제도적, 공간적 장벽 속에서 공유된 건축적 입장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파리 지역의 경우, 전통적 교육방식을 고수 하였던 초기 5개소의 UPA(UPA1~5)에 반대한다는 공통점만으로 UPA6에 모였던 젊은 건축가들이 내부의 입장차가 불거지면서 또다시 UPA7, 8, 9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또한, 초기에 만들어진 UPA3에 자리를 잡은 일군의 젊은 교수들과 UPA8의 주요 구성원들간의 관계 단절은 더욱 미묘한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이 두 학교의 젊은 교수들은 각각 1970년대 가장 활발히 교육적, 지적 성과를 만들어내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 보자르 학교 시절 같은 아틀리에(Atelier Arretche) 출신이면서 당시 이테리 건축이론의 영향을 받으며 유사한 건축적 입장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필립 파느레(Philippe Panerai)와 장 카스텍스(Jean Castex), 앙리 고댕(Henri Gaudin)을 중심으로 한 UPA3의 젊은 교수 건축가 집단은 이전 세대 건축가 및 보자르 학교 선생들에 대해 좀 더 온건한 입장을 유지했으며, 결정적으로 1968년 이전에 이미 시작된 아틀리에의 구조 개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계기로 베르나르 위에 이하 UPA8의 주요멤버들과는 다른 사회적, 제도적 방향을 택하게 되었으며, 이들과 갈등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

두 번째로 언급할 어려움은 건축가들의 자발적 연구, 교육 활동과 정부주도의 연구 진흥 정책과의 마찰이다. 1968이후 프랑스 건축 교육과 연구의 혁신은 건축가-교육자들의 주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랑앙상블(Grand ensemble, 대규모집합주거단지)의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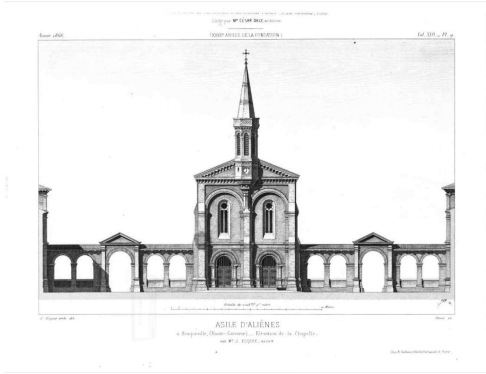
국적인 건설로 대표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시와 주거문제에 대한 양 위주의 대처 방식에 대한 정부 스스로의 문제 인식,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 건축 장려 정책과의 미묘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문화부, 건설부 등 정부의 건축 관련부처들이 건축학교에서의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해 1972년에 설립한 CORDA(Comité d'orientation de la recherche et du développement en architecture, 건축 연구 및 발전 방향 조정 위원회)는 건축 연구의 제도화를 추진한 대표적인 기구였다. 특히 이 기구는 1974년부터 이른바 '좋은 연구'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심사를 통해 건축 연구 재정 지원을 하였다.<sup>10)</sup> 결과적으로 CORDA는 건축 연구의 제도적 정착에 크게 기여하였던 반면, 이 과정 속에서 한편으로는 건축 설계를 궁극적인 목표로 한 교수 건축가들의 실무적(operative) 연구, 다른 한편으로 교육과 연구의 긴밀한 연합 속에서 진행된 UPA의 초기 역사를 특징짓는 주요한 연구방향이 도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이러한 새로운 건축 학제의 정립이라는 공통된 목표와 소통의 한계라는 현실적 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던 1970년대 프랑스 건축계의 상황에서 건축 전문지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이다.

## 2-2. 건축전문지의 상대적 자율성

건축전문지는 건축 출판물이 '건축적 현실'과 맺는 관계에 있어서 특수한 위치를 차지한

10) CORDA는 1974년부터 매년 발간되는 연구지원사업 요강에 건축연구 일반에 대한 방향과 방법, 그리고 특히 일반적인 연구(étude)와 구별하여 학술적 연구(recherche)를 규정하는 안내서 "건축 연구. 방향설정(La recherche architecturale. Texte d'orientation)을 삽입하였으며, 비평가 프랑수아 샬랭(F. Chaslin)은 이를 '좋은 연구자가 되기 위한 설명서'라고 비꼬아 묘사했다. (F. Chaslin, « La recherche n'a pas perdu son temps », *Macadam*, n° 4, 1978, p. 10.)



<그림 2> Revue Générale de l'architecture, 1866.

다. 첫째, 건축전문지는 정기간행물(periodical)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다른 일회적인 출판물보다 주어진 시기의 건축계의 현안들을 빠르고 지속적으로 다룰 수 있다. 또한, 간행간격이 짧은 다른 정간물과 비교했을 때 건축적 현안을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다룰 수 있다.<sup>11)</sup>

둘째, 건축전문지는 집단성을 띤다.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되는 출판 방식은 편집과 간행에 있어서 집단적 차원을 띠도록 강제하며, 여러 개인 및 단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전문지 제작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참여의 과정에서 다수의 개인 및 단체, 기관의 이해관계가 집중된다.<sup>12)</sup>

결과적으로 현실과 이념, 개인 및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건축전문지 상에서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 1) 건축전문지의 자율성 논의

1970년대 미국과 독일에서 건축전문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초기의 연구의 방향은 정간물의 주요 몸체를 이루는 기사들을 객관적 자료로서 간주하고 정량적 분석

11) 건축전문지의 발행간격이 갖는 함의에 대해서는 M. Saboya[1991], p.75을 보시오.

12) J.-M. Domenach, « Entre le prophétique et le clérical », in *La revue des revues*, n°1, mars 1986, p.21-31.



<그림 3> Cahiers d'art, 1933.

의 대상으로 삼는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에 집중하였다. 엘렌 자니에르(Hélène Jannièr)와 프랑스 반래뎀(France Vanlaethem)은 이러한 일세대 연구에 대해 “어떠한 이론적 전제도 없었다”고 주장한다.<sup>13)</sup> 즉, 건축전문지는 특정 시기 건축물과 건축계의 논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처(source)로서 간주되었고 건축 역사 연구의 유익한 ‘보조 수단’으로서 이용되었다는 것이다.<sup>14)</sup>

이러한 입장은 일차적으로 초기 전문지 연구의 주된 대상이었던 19세기 전문지의 특징에 근거를 둔다고 하겠다. 20세기 이후, 우선 1910-20년대 전위운동의 확산 도구로서, 그리고 1920년대 말 이후로 근대건축의 공고화를 목표로 수많은 건축전문지가 출판되었다.<sup>15)</sup> 이러한 출판물에서 나타나는 사진 및 포토몽타주

13) H. Jannièr and F. Valaethem, “Architectural Magazines as Historical Source or Object?”, in *Architectural Periodicals in the 1960s and 1970s*, IRHA, 2008, p.18-19 참조.

14) B. Lemoine, “Les revues d’architecture et de construction en France au XIXe siècle”, *Revue de l’art*, vol. 89, n 89, 1990, p.65에서 이러한 관점이 잘 나타난다.

15) Domus(1928), Casabella(1933), Architecture d’Aujourd’hui(1930) 등이 대표적이다.

를 이용한 특수한 현실 효과의 생산과 비교했을 때 19세기의 전문지는 이미지의 사용차원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현실의 충실한 반영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3) 그러나 19세기 건축전문지가 전개하는 담론의 차원에서, 당시의 건축 직능의 위기와 작업 영역의 변화 속에서 건축가협회 등의 창립과 더불어 건축의 직능, 교육, 자격증 차원에서의 제도적 공인을 목표로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실의 객관적 반영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용 분석으로 요약되는 초기 건축전문지 연구의 관점은 이론적 전제의 부재에 기초한다기보다 “건축전문지가 현실의 직접적 반영”이라는 암묵적 전제에 기초했다고 할 수 있다.

건축전문지 연구에서 건축적 현실과 전문지의 관계에 대한 보다 발전된 입장은 1970년대 말 엘렌 립스타트(Hélène Lipstadt)의 연구에서 정립되었다.<sup>16)</sup> 그는 19세기 공학자와 건축가의 이념적, 직업적 논쟁 속에서 두 진영의 대표적인 전문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통해 건축 정간물이 담론의 투명성을 갖는다는 기존 입장의 한계를 지적하였고, 직능의 공간(espace professionnel)과 담론의 공간(espace du discours)의 구분을 바탕으로 건축 정간물이 공학자와 건축가의 직업적이고 이념적인 논쟁의 중심에서 현실의 변형과 왜곡을 통해 전략적인 건축 이념을 생산하는 사회 제도(social institution)로서 기능함을 논증하였다.<sup>17)</sup> 같은 맥락에서, 립스타트는 19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건축전문지였던 『건축의 일반

리뷰(Revue générale de l'architecture et des travaux publics)』가 법적인 지위와 노동의 분화에서 자리를 확보하지 못한 당시 건축가들에게, “자기 정체성 확인의 근본적인 도구”였다고 보았다.<sup>18)</sup>

이러한 시각은 건축전문지를 단순한 ‘내용 분석’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의 생산과 유통, 효과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문화 현상으로서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며 본 논문을 포함한 이후 많은 건축전문지연구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sup>19)</sup>

반면에 립스타트의 연구방법은 1970년대 건축전문지 연구에 적용하는 데에 한계를 갖는다. 먼저, 그의 연구는 19세기 프랑스의 특수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건축계 내적인 차원에서 벌어진 이념적, 세대적 갈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1960,70년대의 상황에 적용하기 힘들다. 또한 이보다 더 방법론적인 한계는 연구의 ‘내용 분석’적 특성에서 나온다. 전문지의 담론적 공간의 투명성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구는 지면상(紙面上)의 직업적, 이념적 논의를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건축전문지 자체가 그 생산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와 맺는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결여되어 건축전문지의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밝히는데 한계를 갖는다.

## 2) 분석의 방향

본 연구의 방법론적 입장은 건축전문지의 담론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지가 그것의 생산과 소비의 주요 주체들과 맺는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전문지 상의 담론 분석과

16) H. Lipstadt, *Pour une histoire sociale de la presse architecturale : la Revue Générale de l'Architecture et César Daly (1840-1888)*, thèse de doctorat de 3e cycle, Paris, Ecole des hautes études en sciences sociales, 1979.

17) H. Lipstadt *Architectes et ingénieurs dans la presse : polémique, débat, conflit*, Corda-Ierau, Paris, 1980, p.195 참조.

18) H. Lipstadt, 위의 글, 62쪽.

19) H. Jannière and F. Vanlaetehm, 앞의 글, p.20 참조. 건축전문지 연구에 대한 상당히 완결된 리스트는 같은 책의 색인(index)을 참조할 것.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특정집단이나 개인의 이익대변을 넘어서 새로운 건축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되는 전문지에 있어서 이러한 ‘지면 밖’의 사회적 논리가 ‘지면 상’의 담론적 논리와 어떻게 관계맺는지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이다.<sup>20)</sup>

이를위해 본 논문은,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장(場, champ)의 주요 속성으로서 규정한 ‘상대적 자율성’, 즉 사회를 구성하는 수많은 개별적 장들이 자신의 고유한 논리를 유지하며 주변의 다른 장과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한편으로는 건축전문지의 지면상의 담론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지는 전문지 생산 과정과 맺는 관계, 다른 한편으로는 건축전문지의 생산이 당시의 건축계 전반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파악하려고 한다.<sup>21)</sup>

전문지 생산 과정에 대한 분석을 위해 두 전문지 자체의 분석 이외에도 『아엠쎬』의 경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논자가 행한 편집진 및 참여자와의 인터뷰 및 이들의 회고록, 그리고 『오늘의 건축』의 경우 줄리에트 포미에(Juliette Pommier)가 행한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이용하였다.<sup>22)</sup>

### 3. 두 개의 전문지 분석

#### 3-1. 발행인과 전문지의 관계

20) J. Pluet-Despatin, « Une contribution à l'histoire des intellectuelles : les revues », *Cahiers de l'IHTP*, n°20, 1992, Paris, pp. 125-136 참조.

21) 피에르 부르디외의 장의 개념과 저널리즘의 상대적 자율성에 대해서는 각각, 피에르 부르디외 「장들의 몇몇 속성」, 『사회학의 문제들』, 동문선, 2004(1984) ; 『텔레비전에 대하여』, 동문선, 1998(1996)를 참조하십시오.

22) J. Pommier, *Vers une architecture urbaine, La trajectoire de Bernard Huet*, thèse de doctorat, Université Paris 8, 2010의 부록(annexe) 및 그의 건축 학교 졸업논문 부록(2002년)에 인터뷰 녹취록이 수록되어 있다.

두 전문지의 참여자와 외부 관련 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하기에 앞서, 이러한 새로운 관계 형성의 바탕이 되는 편집인과 발행인간의 관계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다른 대부분의 건축전문지와 마찬가지로 『아엠쎬』와 『오늘의 건축』은 편집인과 구별되는 발행인에 의해 간행되었다.<sup>23)</sup> 『아엠쎬』의 경우 정부공인건축사협회가 발행인이었으며, 『오늘의 건축』은 창립자인 앙드레 블록(André Bloc)의 사망이후 1971년에 전문출판사인 테크닉위니옹(Technic union)에 의해 인수되었는데, 대규모 상업출판사와 건축가협회라는 두 전문지의 간행인의 성격차이는 수익성에 대한 입장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림 4> 클로드 파랑(Claude Parent, 원로 편집인단 임원)의 공개 사임 편지가 실린 『오늘의 건축』 174호, IX쪽.

『오늘의 건축』을 간행한 테크닉위니옹은 기존의 수익성을 유지해야한다는 조건하에 편집의 자유를 보장했다.<sup>24)</sup> 『오늘의 건축』의

23) 1960,70년대 유럽과 미국에서 간행된 소규모 건축 전문지 중에서 Archigram(영국), Oppositions(미국) 등은 발행인과 편집인이 동일한 경우이다.

24) Y. Pontoizeau, 인터뷰, in Juliette Pommier, 앞의 글.

운영은 구독료와 광고료에 의존했으며, 광고료는 구독자수에 따라 조정되었는데, 베르나르 위에가 편집장을 맡으며 감행했던 보수건축단체의 직접적인 공격과, 이론중심의 아티클은 발행인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실용적인 정보를 선호하던 실무건축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던 프랑스 내의 구독자와 원로 편집인단(Comité de rédaction) 및 광고주의 불만을 일으켰다.<sup>25)</sup> (그림 4) 결정적으로 건축가협회(l'Ordre des architectes)의 동업조합주의적 성격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담은 베르나르 위에의 편집글 “건축가협회를 위한 장송곡”으로 인해 편집장은 명예훼손죄로 고소되어 패소하였고, 결과적으로 베르나르 위에의 조기 해임을 가져왔다.<sup>26)</sup>

『아엠쎬』는 기존의 직업 단체에서 문화단체로의 이미지를 쇄신을 지향하던 정부공인 건축사협회에 의해 1967년에 창간되었다. 협회는 제한된 예산 하에서 젊은 건축가들을 찾아 전문지의 편집을 맡겼고 출판에 필요한 자금을 전적으로 지원했다.<sup>27)</sup> 『오늘의 건축』의 경우와는 반대로 비수익성 단체로서 전문지 출간을 협회가 주관하는 문화활동의 일환으로 규정한 건축사협회는 1970년대 말에 접어들어, 『아엠쎬』가 참여자와 독자의 증가 속에서 젊은 건축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축전문지로 자리잡아가게 되는 것, 달리말해 『아엠쎬』가 협회로부터 재정 및 문화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 것을 당시 회장이었던 제

라르 브누아(Gérard Benoit)는 협회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했다.<sup>28)</sup> 결과적으로, 늘어나는 구독자수와 편집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행인은 『아엠쎬』의 발행부수를 늘리지 않았고, 협회의 재정위기 속에서 전문지의 폐간을 결정하게 된다.<sup>29)</sup>

따라서 『아엠쎬』에게 정부공인건축사협회라는 특수한 발행인은 정기적인 간행과 편집의 독립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애초에 할당된 규모 이상의 성장을 가로막는 제도적 틀이 되었다.

### 3-2. 참여자, 참여기관, 편집 정책

일관된 편집정책(editorial policy)은 건축전문지의 담론적 정체성을 이루는 반면에 참여자의 다양성과 현실적 사안에의 대응이라는 전문지의 속성과 대치되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전문지의 편집과 출판은 발행인 혹은 편집장과 같은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기 때문에 하나의 건축전문지는 집단적으로 준비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이질성은 전문지의 근본적인 특성이 된다. 결과적으로, 전문지는 편집장 등의 내부적 주체가 만들어내는 일관성 부여의 노력과 외부 참여자의 기여가 갖는 다양성 사이에 놓이게 되며, 따라서 한 전문지의 편집정책은 전문지 제작이 외부적 현실과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한 분석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본 논문은 건축전문지가 외부 참여자 및 기관과 맺는 관계에 있어서 교육기관, 즉 건축학과와의 연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실제로 프랑스뿐만 아니라 당시 유럽과 미국에서 소규모 건축전문지는 건축 교육에 대한 근본적 재

25) 실제로 판매부수가 n°174의 24500부에서 n°190의 22500부로 줄었다. (Y. Pontoizeau, 위의 글)

26) B. Huet, editorial, l'AA, n°181, septembre/october, 1977; 이 소송 사건의 과정에 대해서는 J. Pommier, “Le critique d'architecture”, in *Bernard Huet*, ed. Hartmann, Paris, 2003, p.66을 참조하시오.

27) 『아엠쎬』의 지면에 광고가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전문지 출판을 문화적 지출로서 보는 발행인의 특성에 기인한다.

28) P. Noviant, 논자와의 인터뷰, 2004.

29) 『아엠쎬』 발간의 손익분기점이 8000부로 추정되었으며, 1970년대 말 그 이상의 수요가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발행부수를 최대 월 5500부로 제한했다. (P. Noviant, 위의 글) 『아엠쎬』는 이후 건축전문출판사인 Le Moniteur에 의해 인수되어 1983년부터 같은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고와 혁신이 이루어지던 건축학교와 밀접하게 연관되었으며, 이 두 기관(학교와 전문지)의 위임은 새로운 형식의 건축적 실험을 가능케 하였다.<sup>30)</sup> 전문지의 입장에서는 정기적(혹은 연속적) 간행이라는 기본적인 목표속에서 ‘출판 재료’를 계속적으로 공급해줄 수 있는 기관으로서 당시에 가장 활발히 새로운 담론을 생산하던 건축학교를 필요로 하였고, 건축학교는 교수와 학생들이 생산하는 지적 성과물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속에서 건축 전문지를 활용하게 되었다

UPA 6의 『Cahiers d'UP6』, UPA 8의 『Cahiers d'Architecture』, 또는 낭시(Nancy)의 UPA에서 발간한 『La Mèrulle』 등에서 볼 수 있듯이, 1970년대 몇몇 파리 및 지방의 건축학교들이 개별적으로 정간물을 만들려고 시도하였다.<sup>31)</sup> 또한 1969년 다수의 건축학교들이 모여 건축학교연합(Fédération des Unités Pédagogiques d'Architecture)을 구성하고 월간 소식을 발간하는 등 상호 정보 교류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재정확보와 안정적인 편집진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간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학교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특정 교육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편집적 자율성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간행될 수 있는 재정적 조건을 확보한 전문지의 출판은 발행인의 특수한 동기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아엠세』와 『오늘의 건축』은 참여자의 구성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두 전문지가 근대건축에 대한 비판적인 재검토, 기존도시를 고려하는 건축을 전면적으로 지지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 반면에, 편집 정책의 성격, 참여자의 구성, 각 호의 구성방식 등에 있어서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 1) 『아엠세』의 경우

먼저, 『아엠세』의 경우 편집정책 수립에 있어서 편집장 개인의 건축적 신념이 우선시되지 않았으며 매우 개방적인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우선적으로 발행인의 특성에서 기인하는데, 국가공인건축사협회의 기관지에서 출발한 『아엠세』는 적은 규모의 예산에 맞추어 운영되었으며, 편집장 선정에 있어서도 유명 외부인사를 영입할 경제적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는 건축 교육과 이론 분야에서 명망 있는 베르나르 위에를 영입한 『오늘의 건축』과 비교된다.

국가공인건축사협회 전회장의 아들이었던 건축학교를 갓 졸업한 파트리스 노비앙(Patrice Noviant)은 실무 건축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1973년부터 『아엠세』의 편집장을 맡게 되었다. 그는 전문지의 발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자와 이슈가 될 만한 글들을 찾아나섰다. 그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같은 장-파트릭 포르탱(Jean-Patrick Fortin)과 같이 과거의 보자르 학교의 동료이자 당시 건축학교 교수들을 통해 한편으로는 건축학교에서 만들어진 흥미로운 연구,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적으로 전문지 편집에 참여할 인물을 찾아나섰다. 한 주제에 천착하기보다는 여러 새로운 현안들에 관심을 갖는 그의 성향과 “각기 다른 기관에서 진행되는 개별적인 건축 작

30) B. Colomina et al. 앞의 글.

31) UPA1의 학생들이 편집한 « Vide sanitaire » UPA 7의 학생들이 만든 « Dupé »는 비교적 오래 간행된 예외적 사례이다. 건축학교들의 정간물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François Chaslin, “Ecoles d'architecture ; le temps des initiatives”, *BIEE*, Supplément au n°44, sep/oct 1979 그리고 Michel Denès, “Gazettes, fanzines, newsletters, periodicals, journals. Lost publications of architecture schools in France (1865-2005)”, *EaV*, n°10, 2005, p.98-110를 보시오.

업과 연구들을 출판을 통해 상호교환을 일으키는 것이 건축전문지의 역할이다”라는 그의 입장은 열린 편집정책이라는 『아엠씨』의 이와 같은 초기방향 설정에 일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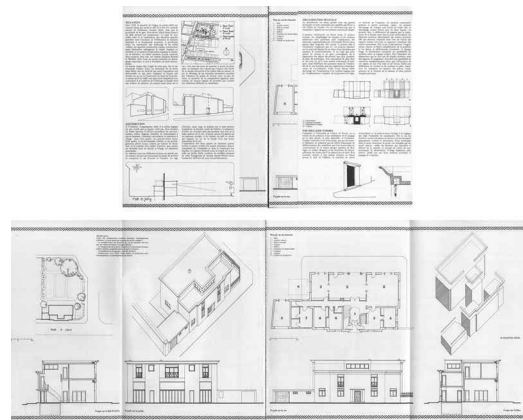
이에따라 각 호의 구성에 있어서도 미리 편집인단에 의해 특정 주제가 결정되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경로, 즉 학교 방문, 친구의 소개, 기고자의 자발적 원고 게재 요청 등을 통해 확보된 글들이 모여 특집 및 섹션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출간을 거듭하면서 점차적으로 UPA 3, 6, 8의 교수와 학생을 중심으로 하여 주요 기고자 그룹이 형성되었고 그들의 연구방향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아엠씨』의 특집 및 섹션 또한 안정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아엠씨』의 편집방향은 이처럼 다양한 장소에서 수집된 아티클들에 최소한의 일관성, 혹은 ‘열린 일관성’을 부여하려는 노력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전문지의 주요 구조를 이루는, 매 호마다 주제를 달리하는 특집(special dossier) 및 여러 호에 걸쳐 같은 기본 타이틀과 방향을 갖는 섹션(section)은 편집장 및 편집진의 적극적, 임의적 기획에서 비롯된다기보다는 당시 건축학교의 상황을 반영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특집과 섹션 간의 구분이 분명치 않았다는 점이다. 먼저, 특집의 주제가 일회적 기획을 넘어서 『아엠씨』의 단골 주제화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당시 젊은 건축가들에게 가장 높은 관심을 받던 주제인 서민 집합주거의 경우, 34호의 일회성 특집으로 기획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UPA8 등을 중심으로 연구성과들이 제공되면서, 35호와 43호에서 다시 특집으로 다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특정 도시를 주제로 한 특집, 근대건축물 소개 섹션 등에서도 단편적으로 다루어지며 『아엠씨』의 주요 주제로 자

리잡았다., 반면에, 35호의 “boulevard des chapelles”이나 36호의 “a...z”와 같이, 정기 섹션이 기획된 경우에도 원고 부족으로 특집 수준의 일회적 기획으로 머물게 되었다.

전문지 지면상의 구조와 건축학교라는 외부 현실과의 관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여러 건축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교육과 연구 활동이 『아엠씨』의 지면상에서 특집이나 섹션에 묶임으로써 하나의 공통된 경향으로 소개되었다는 것이다.



<그림 5> “노스탈지아?” 섹션에 실린 건물분석의 예 (오귀스트 페레의 카산드라 저택, 『아엠씨』, 36호)

『아엠씨』에서 독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섹션인 “노스탈지아?(Nostalgie?)”는 여러 건축학교에서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행해지던 근대 건축 건물 답사와 학생들의 실측 활동을 매번 같은 분량의 역사 기사 형식으로 연계한 것으로 당시 건축학교 내의 지속적인 활동과 전문지의 구조를 연계시킨 대표적인 예이다.<sup>32)</sup> (그림 5)

또한, 특집이나 섹션을 통해 한 자리에 모인

32) 이종우, “「프랑스 68세대 건축가들에 의한 근대운동 재해석의 배경과 의미」,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제27권 제3호, 2011년 3월, 221-222쪽을 참조하십시오.

서로 다른 건축학교의 연구성과들, 혹은 개인적 차원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편집진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소개글(편집글, 특집 소개, 기사 소개 등)을 통해 단순한 지면상의 공존 이상의 통합적인 의미를 부여받았고, ‘집단적 문제의식’이 만들어지는데 일조하였다.

두 가지 예를 살펴보자면, 우선 34호의 특집 “서민 주거, 주거단지, 노동자 주택”을 소개하면서 올리비에 지라르(Olivier Girard)는 “영국식 오두막, 프랑스 북부의 노동자주거, 정원 도시, 마쟁가브(Mazingarbe) 탄광촌, 풀만시티(Pullman City), 뷔트 루즈(Butte Rouge) [를 다루는], 이 모든 기사들은 공통적으로 권력을 상징하는 건물을 설계한다는 관습적인 소명에서 벗어난 건축가의 개입 영역을 다룬다”고 설명한다.<sup>33)</sup> 즉 다수의 기고자들이 각기 다른 세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행 시킨 연구들이 60년대 이후 젊은 건축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도시-사회문제의 심화 속에서 건축가의 작업영역에 대한 재고라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에 편입되며 통합적으로 소개되어졌다. 다른 예로, 45호의 특집 “공공시설의 탄생(Naissances de l'équipement)”에서 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와의 공동작업 속에서 진행된 브루노 포르티에(Bruno Fortier)의 연구와 조르주 테소가 이태리 유학 후 베르나르 위에와의 공동작업으로 진행한 연구가 함께 실리는데, 특집의 소개글은 다음과 같다: “조르주 테소와 브루노 포르티에의 문제제기는 도시 연구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들이 현재 도시의 주요 특성들의 기원이 된 전략들을 역사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sup>34)</sup> 이처럼, 특집과 섹션 등에서 소개글

을 통한 편집진의 개입은 각각의 글에 대한 요약을 넘어서 건축가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한 연구들을 1968년 이후 프랑스 건축 연구의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평가하고 자리매김하는데 이르렀다.

[표 1] 『오늘의 건축』 특집 (1974-1977)

호수	주제	본문에서 비중(쪽수)
174	주거 연구	76/145
175	바다에서 거주하기	n/a
176	파리-런던	72/141
177	Team 10+20	66/111
178	마천루의 삶과 죽음	64/119
179	참여와 건축가 없는 건축	68/124
180	역사도심지 개발	74/125
181	이태리 75	72/111
182	건축가의 공간	56/111
183	대학교, 도시, 국토	n/a
184	Charles Moore	63/111
185	포르투갈. 서기2년	81/113
186	흰색과 회색의 뉴욕	98/111
187	주택과 도시 형태	81/124
188	산업 정책과 건축. 올리베티의 예	100/100
189	풍피두 센터 (외)	n/a
190	형식주의-리얼리즘	n/a

2) 『오늘의 건축』의 경우

『오늘의 건축』은 1960년대 이후 베르나르 위에의 부임 전까지 뚜렷한 편집방향 없이 상업적 논리에 따르는 공식적 전문지의 전형적 특성을 가져왔으나, 그가 편집을 맡게 되면서 전면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다.

그는 이전의 『오늘의 건축』이 보여주었던 건축의 다양한 경향을 중립적으로 소개하는 ‘카탈로그식’ 편집 정책과는 대립되는 방향을 취했으며, 초기부터 보들레르의 글을 인용하며 “편파성”을 전문지가 지향할 가치로 내세웠다.<sup>35)</sup>

33) O. Girard, « Logement social, cités et maisons ouvrières 1 » 특집 소개글, n° 34, p.8.

34) Jacques Lucan, « Naissance de l'équipement »의 특집 소개글, AMC, n°45, 1978년 5월, 79쪽.

35) 베르나르 위에는 그가 편집장을 맡은 이후 첫번째

이러한 새로운 편집장의 입장은 편집진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통해 구체화되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오늘의 건축』의 편집이 그가 설립하고 몸담고 있던 건축학교 UPA8와 부설연구소(ITERAU, 1970년 창립)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우선 편집장 베르나르 위에는 UPA8에서의 교육과 연구, 그리고 전문지의 편집장 역할을 병행했으며, 편집진을 구성하는 상근기자는 위의 제자이자 UPA 8의 선생이었던 마리-크리스틴 강뉴(Marie-Christine Gangneux)와 브라이언 B. 테일러(Brian B. Taylor)가 맡았다.

또한, 베르나르 위에 시기의 『오늘의 건축』은 매 호가 한 개의 특집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준비 방식은 연구소의 소장으로서의 베르나르 위에와 그의 지휘를 따르는 연구원들 간의 관계가 연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베르나르 위에가 특집 주제와 방향을 미리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상근기자들은 위에와의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연구 방향’과 자료를 정하고 필요한 기고자를 정하였다. 상근기자들에게 있어 특집은 미리 정해진 연구 성과의 요약이 아니라 베르나르 위에의 지도하래 새롭게 진행될 연구주제였다.<sup>36)</sup> 또한, UPA 8의 연구소에서 이미 진행된 연구성과도 특집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기사화되었다.<sup>37)</sup>

정규 섹션과 특집 및 뉴스, 서평 등에 지속적인 참여한 인물들로 앙리 레몽(H.

Raymond), 에디트 지라르(E. Girard), 윌리 세르닐스(Willy Serneels), 프랑수아 레네(F. Laisney), 클로드 비에(C. Vié), 크리스티앙 드 빌러(C. Devillers), 조르주 테쏘(Georges Teyssot)를 들 수 있는데, 이들 모두 같은 보자르의 아틀리에(Atelier Arretche)에서, 혹은 미국 유학 중에 베르나르 위에와 친분을 맺기 시작했으며, 조르주 테쏘를 제외하고 UPA8에서 활동하였다.

따라서 『오늘의 건축』은 편집장을 중심으로 건축학교에서 이미 구성된 집단의 결속을 강화하고 집단의 이념을 발전시키며 알리는 ‘실현의 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 3-3. 사회적 네트워크의 확장

『오늘의 건축』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네트워크의 또 다른 특징은 외국 건축가 및 건축이론가의 활발한 참여이다. 여기에서도 일차적으로는 편집장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바탕이 되었다. 베르나르 위에는 1960년대 이태리와 미국 유학의 경험을 바탕으로 알도 로씨(Aldo Rossi), 루이스 칸(Louis Kahn), 만프레도 타푸리(Manfredo Tafuri) 등 외국의 건축가, 이론가들과 친분관계를 맺었고, 외국 현상설계의 심사위원 참여, 끊임없는 프랑스로의 초대를 통해 관계를 유지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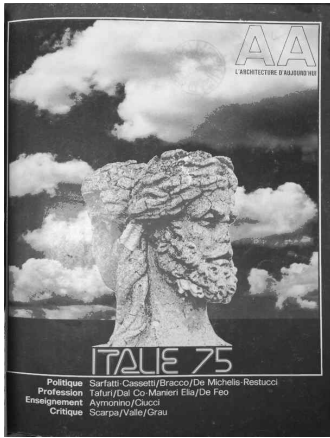
반면에, 『오늘의 건축』의 지면상에서 이루어진 활발한 외국 건축가 및 이론가의 참여는 베르나르 위에 개인의 교류 차원을 넘어서었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다른 문화 교류(transfert culturel)에서도 그러하듯이, 두 문화사이의 교량역할을 하는 중개자(passeur culturel)의 중요성이다.<sup>38)</sup>

호(174호)에서 앞으로의 편집방향을 밝히는데, 샤를르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의 비평론을 인용하며 «비평이 존재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편파적, 열정적, 정치적이어야 한다»고 천명한다. 이는 앞서 설명한 ‘공식적 전문지’의 성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36) M.-Ch. Gangneux, 인터뷰, in Pommier, 앞의 글.

37) 그가 편집장을 맡은 뒤 처음으로 출판된 174호의 “주거 연구” 특집이 대표적인 예이다.

38) 문화적 중개자의 개념은 국가간 문화 전이에서 교량의 역할을 하는 여러 종류의 인물, 즉, 번역가, 출판인, 저널리스트, 교육자, 정보 배급자 등등을 통칭하기 위해 사용된다.(Diana Cooper-Richet, Jean-Yves Mollier et Ahmed Silem, *Passeurs culturels dans 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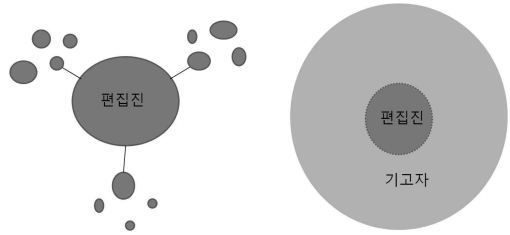


<그림 6> 『오늘의 건축』 181호 특집 「이태리 75」

『오늘의 건축』의 경우에 조르쥬 테쏘가 181호 이태리 특집 및 서평을 통하여, 브라이언 B. 테일러는 177호 팀텐(Team 10) 특집, 184호 찰스 무어 특집, 186호 뉴욕 특집 및 기타 다수의 기사 및 서평을 통하여 전문지 상의 문화교류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해외 경향을 소개하는 이러한 특집들을 통해 다이아나 아그레스트(Diana Agrest), 에밀리오 암바즈(Emilio Ambasz), 케네스 프램튼(Kenneth Frampton), 마리오 간델소나스(Mario Gandelsonas), 렘 콜하스(Rem Koolhaas), 로버트 스텐(Robert Stern), 찰스 무어(Charles Moore), 만프레도 타푸리(Manfredo Tafuri) 등 해외의 역사이론가 및 실무 건축가의 참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오늘의 건축』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적 네트워크는 일차적으로 베르나르 위에 개인의 인맥에서 출발했으며 이러한 특성을 강하게 유지함과 동시에 특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화적 중개자의 기여를 통해 그의 사적 네트워크를 넘어서는 지적, 국제적 확장이 있

*monde des médias et de l'édition (XIXe s et XXe s)*, Villeurbanne, Presse de l'Enssib, 2005. 참조)



<그림 7> 두 건축전문지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비교 도식: 『오늘의 건축』(좌), 『아엠쎬』(우)

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확장에는 외국의 지식인-건축가들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전문지 편집을 통해 건축계에서 자신의 국제적 입지를 만들겠다는 베르나르 위에의 개인적 기획이 있었는데<sup>39)</sup>, 이는 건축전문지의 집단적 준비과정과 출판 효과라는 특수한 메커니즘을 통해 실현되었다.

『아엠쎬』의 경우, 문화적 중개자의 역할은 국제 교류에서보다도 국내적, 그리고 신세대 건축가들 내적 차원에서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엠쎬』에서도 올리비에 지라르(Olivier Girard)의 주도하에 이태리 건축전문지 『콘트로스파치오(Controspazio)』와의 교류가 있었고 각각 상대방을 소개하는 특별호가 출간되었고<sup>40)</sup> 외국 건축가들과의 인터뷰가 정규 섹션을 이루며 유지되었으나<sup>41)</sup>, 『아엠쎬』의 역사에서 예외적인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파트리스 노비앙의 시기동안 조르쥬 테쏘(3회), 프랑수아 레네(3회), 프랑수아즈 베리(3회), 필립 뒤보이(Philippe Duboy, 2회) 등 파리 보자르 학교 출신 이태리 유학파의 지속

39) M.-Ch. Gangneux, 앞의 글.

40) AMC *l'autre*, n°2-3, 1976 2월; *Controspazio*, n° 1, "Nuova architettura in Francia", 1976 1-2월.

41) 인터뷰 시리즈를 통해 Ricardo Porro, James Stirling, Oriol Bohigas, Robert Venturi & Denis Scott Brown, Aldo Rossi, Peter Eisenman, Alvaro Siza가 소개되었다.

적인 참여가 있었는데, 이들의 참여는 전형적인 의미에서의 문화적 중개자의 역할이 아니라, 자신들이 외부에서 진행시킨 연구에 기초한 기사를 게재하는 방식이었다. 42)

『아엠쎬』를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적 네트워크의 특징은 편집장의 개인적 인맥이 극히 드물게 이용된다는 점이며, 참여자의 숫자와 관련된 기관에 있어서 『오늘의 건축』보다 폭넓은 구성을 보인다. 43) 당시 건축학교에서 “모두가 아엠쎬를 읽었다”는 건축가들의 회고와 자발적 기고를 적극 수용한 편집정책, 그리고 건축학교 교수와 학생의 폭넓은 기여를 보았을 때, 편집진 및 기고자와 독자 간의 경계가 불분명했으며 건축학교의 학생과 선생님로 구성된 독자층은 잠재적인 기고자였다고 할 수 있다. 44)

이처럼 『아엠쎬』가 신세대 건축가들에게

42) 반면에 프랑수아즈 베리가 행한 만프레도 타푸리의 인터뷰는 전형적인 문화적 중개자의 역할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Entretien avec Manfredo Tafuri”, *AMC*, n 39, pp.64-68. 개인적인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기사는 조르주 테소의 경우, “전원 주택과 픽취레스크”(34호, 1974년), “도시-시설, 공공 건물 건축의 생산 1795-1848”(45호, 1978년)이 있다. 프랑수아 레네의 경우, “HLM(저렴임대주택)가 분홍빛이었을 때”(35호, 1974년), “도시의 마지막 성벽”(43호, 1977년)이 있으며, 프랑수아즈 베리의 경우 “오귀스트 페레”(37호, 1975년), “J.M.L. Lauweriks, 건축가이자 신지학자”(40호, 1977년) 등이 있다.

43) 편집진 및 기고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파르티스 노비앙이 공식적으로 편집장을 맡은 시기인 31호(1973.9.)에서 54/55호(1981.9.)까지 총 186명이 참여했다. 2회이상 기고를 한 인물들과 소속된 기관을 살펴보면, UPA1, UPA3, UPA8, UP de Nancy(낭시 건축학교), 이태리의 베니스 건축 대학(IUAV) 등의 교육기관이 대표적이며, 특히 UPA8, UPA3, UPA6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다.

44) 한 전문지에 대해 누가 읽었으며 그들이 어떻게 독해를 했는지, 즉 전문지의 수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 즉 수용의 측면에 대한 객관적 파악은 불가능하다. 배포(diffusion)의 양적 기준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간행부수도 출판물의 파급효과와는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한 행물의 출판 효과를 파악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아엠쎬』의 경우 독자편지 분석, 편집에 참여했던 16인의 회고를 통해 독자층과 수용 태도를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기여한 바는 일차적으로, 편집장을 중심으로한 제한된 사회적 관계의 강화가 아니라 관계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그 범위가 파리지역 건축학교와 신세대 건축가 전반에 이르는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의 구성에 있다. (그림 7)

사회적 네트워크는 친분에 의한, 전략적, 또는 일시적 이해관계 등을 바탕으로 하는데, UPA의 초기 역사라는 특수한 상황, 즉 한편으로는 젊은 건축가들이 옛 보자르 교육 체제와 대규모 공공건물 수주를 독점하고 있던 기성세대 건축가들에 대항하여 ‘연합 전선’을 만들어야했던 상황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신세대 건축가 내부에서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았다.

### 3-4. 『아엠쎬』와 문화적 네트워크

그러나 『아엠쎬』를 중심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더욱 의미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지면상에서 만남을 통한 새로운 차원의 관계 형성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특집, 섹션 등을 통한 개별적 기사들의 통합과 재구성에 의해 개별기고자의 개인적 동기와 문제의식을 넘어서는 집단적 담론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의 효과는 이미 형성된 건축 이념을 일방적으로 전파하거나 특정 집단의 직접적 이익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육기관들과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당시 젊은 건축가들이 진행 중이던 건축적 성찰과 연구를 소개하고 공론화 하는 것이었다.

『아엠쎬』는 1968년부터 시작된 다수의 UPA 설립이후 침예한 문제가 된 프랑스의 신세대 건축가 내의 분열된 사회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뿐만 아니라 건축가들 내부에 지적으로 공유된 입장이 형성되고 있음을 인식시키는데 중요한 공헌을 했다. 이러한 ‘아엠쎬 효과’는

[표 2] 『아엠씨』의 주요 기고자

주요 기고자	참여 횟수	소속기관
G. Baty-Tornikian	5	UP3, 8
Philippe Boudon	3	UP(Nancy)
Patrick Celeste	5	UP3
Paul Chemetov	4	AUA
Jean-Louis Cohen	10	UP1
Christian Devillers	5	UP8
Philippe Duboy	2	IUAV(Italy)
F. Fichet-Poitrey	3	SADG
Bruno Fortier	2	UP6
Jean-Patrick Fortin	5	UP8
Claude Franck	3	n/a
Pierre Gangnet	4	UP8
Henri Gaudin	5	UP3
Patrick Germe	3	UP3,UP8
Edith Girard	4	UP8
Olivier Girard	9	UP8
Antoine Grumbach	3	UP6
Roger H. Guerrand	2	UP8
Bernard Hamburger	3	UP(Nancy)
Bernard Huet	4	UP8
Laurent Israël	2	UP8
François Laisney	3	UP8
Hélène Lipstadt	4	EHESS,
Jacques Lucan	편집장	UP6
Fernando Montes	3	UP6
Patrick Noviant	편집장	UP1
Philippe Panerai	5	UP3
Michel Raynaud	4	n/a
Pierre Saddy	8	UP8
Claude Schnaidt	2	UP1
Manfredo Tafuri	3	IUAV(It)
Georges Teyssot	3	IUAV(It)
Daniel Treiber	3	UP6
Bruno Vayssière	2	n/a
Françoise Very	5	IUAV(It)

당시 젊은 건축가들이 각자의 제도적 장소 내에서 갖고 있던 새로운 건축의 방향에 대한 유사한 문제의식이 건축전문지라는 지면을 통해 짜여지고 현재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을 앞서 언급한 ‘사회적 네트워크’와 비교해서 ‘문화적 네트워크’의 형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 4. 결론

본 논문은 1970년대 건축전문지가 해당 시기의 역사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담고 있는 정보 제공처 이상의 현실적, 사료적 가치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건축전문지 연구 방법론에 대한 일반적 고찰을 통하여 전문지가 건축적 현실과 맺는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건축전문지가 그것의 생산에 관여하는 다양한 주체들과 맺는 상대적 자율성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함을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두 개의 건축전문지를 분석하였다.

두 전문지는 각각의 방식으로 1970년대 건축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건축 교육과 연구의 재정립 과정에 깊이 개입했으며, 이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공고화하였다. 『오늘의 건축』이 편집장 베르나르 위에의 개인적 역량과 특정 건축학교라는 제도적, 사회적 기반을 바탕으로 프랑스 건축계의 지적 담론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공헌하였다면, 『아엠씨』는 당시 여러 건축학교에서 출발단계에 있던 다양한 형태의 건축 연구와 실험적 교육을 긍정하고 공론화하였으며, 편집장 파트리스 노비앙의 말을 따르자면 한 세대의 건축가들에게 있어서 ‘자아발견의 도구(Dispositif de découverte de soi)’가 되었다.<sup>45)</sup> 따라서, 두 전문지의 지면상에서 전개되었던 건축적, 이론적 담론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1968년 이후 건축 교육과 연구의 새로운 출발점에 놓여 있던 프랑스(파리) 건축계라는 지역적, 사회적, 제도적 조건 속에서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다. 특히, 각각의 전문지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사회문화적 네트워크의 속성을 파악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의 연장임과 동시에 독자

45) P. Noviant, 논자와의 인터뷰, 2004.

적인 지면상의 논리를 갖는 전문지가 외부조건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내는 담론적 자율성을 파악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1. 이종우, 「프랑스 68세대 건축가들에 의한 근대운동 재해석의 배경과 의미」,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제27권 제3호, 2011년 3월, 215-222쪽.
2. AMC, n° 31-54/55 (1973-1981), 발행인: la Société des Architectes Diplômés par le Gouvernement, Paris.
3. L'Architecture d'Aujourd'hui, n°174-190 (1974-1977), 발행인: Technic-Union S.A., Paris(Boulogne).
4. Ginette Baty-Tornikian, 논자와의 인터뷰, 파리, 2005.
5. Pierre Bourdieu, 『사회학의 문제들』, 동문선, 2004(1984).
6. Pierre Bourdieu, 『텔레비전에 대하여』, 동문선, 1998(1996).
7. Olivier Girard, 논자와의 인터뷰, 파리, 2006, 2007
8. Patrice Noviant, 논자와의 인터뷰, 파리, 2004, 2006.
9. Beatriz Colomina and Craig Buckley (editors), Clip/Stamp/Fold: The Radical Architecture of Little Magazines 196x-197x, Barcelona, Actar publisher, 2010.
10. Michel Denès, « Gazettes, fanzines, newsletters, periodicals, journals. Lost publications of architecture schools in France (1865~2005) », EaV, n°10, 2005, Versailles, p.98-110.
11. Jean-Marie Domenach, « Entre le prophétique et le clérical », La revue des revues, n°1, mars 1986, p.21~31.
12. Hélène Jannièrè and France Vanlaethem (dir), Architectural Periodicals in the 1960s and 1970s, Montreal, IRHA, 2008.
13. Jong-Woo Lee, Un territoire de l'architecture : AMC et le renouveau de la culture architecturale en France (1967~1981), thèse de doctorat, Université Paris-Est, 2010.
14. Hélène Lipstadt, Pour une histoire sociale de la presse architecturale : la Revue Générale de l'Architecture et César Daly (1840~1888), thèse de doctorat de 3e cycle, Paris, Ecole des hautes études en sciences sociales, 1979 ; Architectes et ingénieurs dans la presse : polémique, débat, conflit, CORDA-IERAU, Paris, 1980.
15. Jean-Jacques Nuel, La revue. Mode d'emploi. Guide à l'usage des auteurs, des créateurs de revues et des attachés de presse, Paris, éd. Calcre, 1999.
16. Juliette Pommier, Vers une architecture urbaine, La trajectoire de Bernard Huet, Thèse de doctorat, Université Paris 8, 2010.
17. Jacqueline Pluet-Despatin, « Une contribution à l'histoire des intellectuelles : les revues », Cahiers de l'IHTP, n°20, 1992, Paris, pp. 125-136.
18. Marc Saboya, Presse et Architecture au XIXe siècle, Paris, éd Picard, 1991.

접수(2011. 8. 15)

수정(1차: 2012. 1. 16, 2차: 2012. 2. 6)

게재확정(2012. 2. 16)



# Reality and Reflection: French Architectural Journals in the 1970s as sociocultural network

Jong-Woo Lee

(Lecturer, Hanayng University )

##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demonstrate the sociocultural significance of architectural journals produced in the 1970s during which a fundamental reconsideration of architectural discipline has been made. To this end, we established a method of analysis adap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architectural journals of that period. In this formulation, the relative autonomy of architectural journal with regard to various actors and institutions involved in its production emerged as a major criterion for the analysis of a journal.

From this methodological reflection, we analyzed two French architectural journals, AMC published between 1973 and 1981 and *l'Architecture d'Aujourd'hui* between 1974 and 1977, which were produced both in close relation with parisian architectural schools (UPA) in the context of reestablishment of architectural education and beginning of architectural research in France after the events of May 1968. If these journals reflected and strengthened the architectural reality and especially the social network of their protagonists, it is equally important to note that they have transformed it into cultural network, and this by the mechanism proper to their preparation and their textual organization.

---

Keywords: French architecture in the 1970s , architectural journal,  
relative autonomy, social and cultural networks

---